

#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 종전 합의 낙관에 미국증시 상승

- 미국 증시 상승: 다우 +0.70%, 러셀2000 +0.79%
- 미국-이란 평화협상 타결 기대..국제유가 3%대 하락
- 이번주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 첫 FOMC 예정

### Summary

#### 미국증시 상승: 주간 수익률 한 주 만에 반등

6월 12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을 반영해 일제히 상승 마감.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전반적 상승 분위기에 힘을 실었음.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0.70% 상승한 51,202.26에 마감해 51,000선을 회복했고, S&P500 지수는 0.50% 상승해 7,431.46에 거래를 마칩. 나스닥 지수는 0.31% 상승한 25,888.84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100은 0.64% 상승한 29,635.95에 마감.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79% 상승.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 VIX는 9.05% 하락해 17.68에 마감.

주간으로는 3대 지수 모두 전 주의 하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함. 다우가 한 주간 0.66% 상승했고, S&P500이 0.65% 상승, 나스닥 지수가 0.70% 상승했음.

(다우 +0.70%, 나스닥 +0.31%, S&P500 +0.50%, 러셀2000 +0.79%)

#### 미국-이란 종전 협상 낙관론 우세..결국 "타결"

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도달했으며 서명만 남았다고 밝혀 종전에 대한 기대를 키움. 이란에서는 내부 매체들을 통해 아직 합의에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주말 유럽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힌 서명식도 허위라는 보도가 나와 혼란을 불러 일으킴.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미국과의 양해각서 초안에는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에 대해 어떤 약속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도.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게시물을 올려 이란을 향해 '상대하기에 매우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 것' 이라 맹 비난.

다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양국의 종전 관련 협상은 최종 조율 단계에 있으며 합의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앞서 나온 미국 측 발언과 궤를 함께 하는 메시지를 내놓았고 이에 시장은 낙관론에 다시 무게를 실음. 트럼프 역시 재차 서명식이 주말 혹은 월요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기대를 키움.

한편 주말동안 서명식 일정과 종전 양해각서에 포함될 핵심 쟁점에 대해 공방을 지속하던

미국과 이란이 결국 평화 합의를 타결지었다고 세바즈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오늘 아침 (한국 시각 15일 오전) 밝힘.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금요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으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이 완료됐다고 전함. 그는 이로써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전면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하며 미국의 해군 봉쇄 해제를 승인한다고 밝힘. 서명식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그 사이 추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으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월요일 글로벌 증시 전반에 우호적인 영향을 기대.

**6월 기대 인플레이 예비치 하락**

미시간대가 조사한 미국의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공개됨. 예비치 48.9로 전달에 비해 4.1 포인트 상승했으며 시장 예상치 46.0도 웃뽀.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달 대비 상승한 것은 5개월만에 처음. 세부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현재 경제 여건 지수가 전달 대비 5.7% 상승했고,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 지수는 11.8% 상승. 미시간대는 이번 심리 개선이 연령, 교육, 정당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예산에서 휘발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서 강한 심리 상승이 나타났다고 설명함. 다만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다소 침체된 수준.

함께 공개된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8%에서 4.6%로, 5~10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9%에서 3.4%로 각각 하락해 우호적. 다만 전쟁 발발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높아진 수준임.

**이번주 워시 의장 첫 FOMC 예정**

이번주 시장은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주목할 전망.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로 시장은 현재 기준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만 이번 달 금리 향방보다는 금리 결정 이후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하게 될 그의 입장이 보다 중요하게 여겨짐. 지난 4월 FOMC 이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댈러스 연은 총재 등이 성명에 '완화 편향' 문구가 담기는 것에 반대했으며 이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함.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도 여전한 상황에서 워시 의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향후 연준 FOMC 회의의 운영 방향을 가능하게 해 줄 중요한 힌트가 될 것으로 보임.

FOMC 회의는 현지시각 16~17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 오는 19일 미국 금융 시장은 '준 틴스 데이'로 휴장함.

**특징종목**

**반도체주 반등 대체로 지속**

반도체주 반등세는 대체로 지속. 지난주 초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블랙스톤 등과 함께

‘AIXPV’ 플랫폼을 설립한다고 밝힌 브로드 브로드컴(-0.91%)과 전일 12% 가까이 급등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43%) 정도가 이날 반도체 업종 내에서 약세였고,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엔비디아(+0.16%), AMD(+4.73%), 인텔(+6.51%), 텍사스 인스트루먼트(+1.35%), 퀄컴(+4.32%),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2.48%), 램 리서치(+1.18%),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2.64%), KLA(+5.55%), 샌디스크(+5.24%), 시게이트 테크놀로지(+8.25%), 웨스턴 디지털(+6.36%) 등 장비, 스토리지까지 대부분 종목이 강세.

특히 AMD는 씨티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조정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 씨티는 AMD가 그래픽 처리 장치(GPU)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일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수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또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0.16%)에 대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매수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250달러에서 285달러로 상향했음.

이날 반도체주 전반의 대체적인 상승세를 반영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52% 상승했고, VANECK SEMICONDUCTOR ETF(SMH)(+1.72%), ISHARES SEMICONDUCTOR ETF(SOXX)(+1.59%), INVESCO PHLX SEMICONDUCTOR(SOXXQ)(+1.53%) 등 대표 반도체 ETF도 대부분 상승.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중이 높은 ROUNDHILL MEMORY ETF(DRAM)(-0.17%)는 전일 13%대 급등을 뒤로 하고 소폭 하락.

### 소프트웨어주 약세: 어도비 과매도 구간 진입

반도체주가 대체로 상승했다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대체로 약세. 특히 전일 마감 이후 전분기 실적을 발표한 어도비(-6.75%)의 낙폭이 컸음. 어도비는 전분기 실적이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비GAAP 영업마진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 최고 재무 책임자(CFO) 댄 던이 6월 15일부로 회사를 떠난다고 밝힌 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침. 산타누 나라엔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월 퇴임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CFO까지 자리를 떠나며 C-레벨 리더십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게 됐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던져줌. 어도비 주가는 올들어 약 40% 가량 하락해 7년래 최저 수준에 근접했으며 현재 기술적으로도 14일 RSI(상대강도지수) 30 이하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음. 서비스나우(-0.9%), 데이터 도그(-1.85%), 오토데스크(-3.47%), 세일스포스(-0.34%) 등 주요 종목 대체로 하락 마감.

### 유가 하락: 여행주 강세

종전 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바탕으로 국제유가가 이를 연속 큰 폭 하락하자 항공, 크루즈, 숙박, 여행 등 유가 하락에 따른 직접적 비용 부담 완화 기대 업종은 상승. 델타 에어라인스(+1.50%), 아메리칸 에어라인스(+2.25%),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2.58%),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2.66%), 에어비앤비(+1.08%), 익스피디아(+0.10%),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1.20%), 메리어트 인터내셔널(+1.42%), 카니발(+3.77%), 노르웨이저인 크루즈 라인 홀딩스(+1.94%),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2.23%) 등.

**이외 특징주: 우주 관련주 차익실현**

미국 내 최대 규모 브로커리지 증권사를 포함해 상업은행과 자산운용사 등을 거느리고 있는 종합 금융서비스사 찰스 슈왓(+2.71%)의 지난달 핵심 순자산이 1년 전에 비해 43% 증가해 5월 기준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는 소식과 함께 강세. 일일 평균 거래량도 사상 최고 1,180만건을 기록했다고 밝힘. 찰스 슈왓 이외에도 JP모건(+2.31%), 골드만삭스(+2.62%), 뱅크오브아메리카(+1.56%) 등 금융주 대부분이 1~2%대 강세.

반도체와 금융, 에너지와 유틸리티, 원자재 등 대부분 업종/종목군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진. 엔비디아(+0.16%)와 마이크로소프트(+0.10%)가 보합권에 거래를 마쳤고 구글(+0.53%)과 테슬라(+1.82%)가 상승권에 머물렀지만 애플(-1.52%)과 메타 플랫폼스(+0.26%), 아마존닷컴(+1.23%), 브로드컴(-0.91%) 등은 약세권에 머물렀음. 이날 나스닥에 신규로 상장한 대어 스페이스X(+19.22%) 쪽으로 대규모 자금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19.22%)가 이날 나스닥에 상장돼 거래를 시작함. 공모가 135달러 대비 19.34% 급등한 161.11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이로써 시가 총액은 2조 달러를 돌파하며 미국 증시 시가 총액 기준 6위 기업에 등극. 한편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2025년 매출 187억 달러 기준 약 110배로 다른 초대형주들을 한참 웃뽀. 그럼에도 월가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긍정적 의견을 내고 있음. 가장 긍정적 의견을 낸 곳은 오픈하이머로, 오픈하이머는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과 함께 목표주가 190달러를 제시. 자본과 데이터, LLM과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인력을 모두 확보한 사실상 유일한 수직계열화 AI 기업이라고 평가. 특히 스타링크의 안정적 현금 흐름과 우주 데이터센터 사업의 잠재력에 주목. 뉴스트리트 리서치 역시 기업가치를 약 2조 3000억 달러로 평가하며 긍정적 의견 개진. 다만 보수적 의견을 낸 곳들도 있는데 모닝스타의 경우 적정 가치를 약 7800억 달러로 평가했으며 CFRA는 목표가 115달러와 함께 매도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함.

한편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왔던 여타 우주 관련 기업들은 이날 스페이스X로 자금이 이동하며 일제히 하락. 로켓 랩(-10.79%), AST 스페이스모바일(-15.53%), 레드와이어(-11.53%), 에코스타(-10.97%),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19.05%) 등.

나스닥이 분기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6월 22일부터 5개 기업을 나스닥 100에 신규 추가한다고 밝힘: 코어위브(+5.02%), 아스테라 랩스(-0.09%), 네비우스 그룹(+4.55%), 테라다인(+5.72%), 로켓 랩(-10.79%).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 금리 상승: 전일 하락분 일부 되돌림**

미 국채 금리는 이틀 연속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전일의 하락분을 일부 되돌리며 소폭 반등. 2년물 국채 금리는 1.90bp 상승해 4.0809%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1.80bp 상승한

4.4789%를 기록. 30년물 금리는 1.10bp 상승한 4.9664%를 기록.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는 39.80bp로 0.12bp 축소.

이날 미 국채 금리는 대체로 장 중 내내 상승권에 머물렀으며 이란 관련 이슈의 방향성에 따라 상승폭을 확대하거나 줄이는 정도의 움직임만 보였음. 초반 이란이 양해각서 초안에는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에 대해 어떤 약속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비난하고 나서자 국채 금리는 오름폭을 확대. 다만 이후 이란 외무장관이 협상이 최종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금리는 오름폭을 축소함.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날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40%대로 반영했으며 연내 한 번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42%대로,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은 16%대로 각각 반영함.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1% 미만으로 집계됨.

### 달러 인덱스 약보합

미 달러화 가치는 이란과 미국 사이 종전 협상 관련한 보도의 향방에 따라 장 중 등락했으며 오후장 보합권에서 횡보세를 보이다 소폭 하락 마감. 국제유가가 이를 연속 하락했지만 이날 국채 금리와 마찬가지로 달러 가치 역시 이에 크게 영향받지는 않는 모습.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99.747로 0.11% 하락했으며 유로-달러 환율은 0.07% 상승해 유로의 달러 대비 소폭 강세를 반영함. 달러-엔 환율은 0.06% 상승한 160.26엔으로 하루만에 다시 160엔선을 돌파하며 엔화 약세 폭을 확대함.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1,519.8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50원 추가 하락해 1,518.3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35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증가 대비 1.05원 하락한 1,517.40원에 마감함.

### 국제유가 이틀째 큰 폭 하락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를 반영해 이틀 연속 크게 하락함.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23% 하락한 배럴당 84.88달러에 마감해 최근 월물 증가 기준 지난 4월 이후 약 2개월만의 최저를 기록했고, 브렌트유 8월물 역시 3.37% 하락한 배럴당 87.33달러에 마감해 지난 3월 초 이후 약 3개월만의 최저를 기록함. 이날 두바이유도 6% 이상 급락한 배럴당 83.18달러를 기록. 세 유종이 모두 배럴당 90달러를 하회한 것은 미국과 이란 간 교전이 진행되던 지난 3월 4일 이후 처음.

이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자신의 X 게시물을 통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가 그 어느 때보다 체결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주말 혹은 다음주 월요일(15일) 합의 서명이 가능할 것

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함. 다만 종전 양해각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핵 프로그램과 해외 동결 자산 해제 문제,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으며 이는 유가 하락 폭을 다소 제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국제 금가격 역시 종전 합의 임박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며 급등. 시카고 파생 상품 거래소 그룹(CME) 산하 금속 선물 거래소 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3.15% 상승한 트로이 온스당 4,243.60달러 기록. 67거래일만의 반등.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도 동반 상승. 6% 가량 상승해 온스당 67달러 후반대를 기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이 권장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